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7월 26일 (제 1368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칼 럼

나는 잘된다

나는 잘된다, 잘된다.
나는 잘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약속하셨고, 또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마10:32)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은 곧 생명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다, 성공한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승리한다, 승리한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형통한다, 형통한다.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
국화 씨를 심으면 국화가 피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매 맺는다. 사과를 심었는데 엉겅퀴가 나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라.
나는 잘될 수밖에 없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시 94:9)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행치 않으시라(민14:28).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선포하라.
나는 잘된다, 잘된다.
나는 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대로 될지여다! 말한 대로 될지여다. 아멘!

수련회는 영적 전지훈련이다

이제 내일부터 청소년연합수련회와 유초등부 여름성경캠프, 그리고 하계산상집회가 연속으로 장성 에루살렘기도원과 인천교회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목사님은 수련회를 앞두고 교단의 전 교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빨간판 잠언을 보내셨습니다.
“수련회(修練會)다운 수련회란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수련회는 영적 전지훈련(轉地訓練)이다.”
우리 교단은 하다못해 유아유치부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영성훈련을 성경캠프를 통해 진행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영적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도록 기도으로써 성령충만을 입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에 힘써라,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병든 영혼이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세뇌시킨다, 가스라이팅 아니냐’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좋습니다. 왜? 이것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악한 마귀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귀신들의 공격을 거뜰히 이기고 그 날에 주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에

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걸어간 길, 그리고 지금도 그와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 역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말씀에 전무하며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까, 어떻게 하면 더 알기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나는 다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에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평화를 누리며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이런 강력한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 또다시 여러분들을 기도원으로 끌



가자! 우리 영적 전지훈련의 도장 기도원으로~~!!!

목사님의 목회 지침 자체가 ‘폐일언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자’는 것입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충만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건으로 다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은 회개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殿)으로서 우리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온전히 이끌어가실 수 있

게 속아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다 성령을 소멸하여 무너져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당장이라도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히 외쳤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딤후 4:7~8).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전4:16), 나를 닮으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도 40여 년 넘게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려 몸부림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내 목숨까지 던지는 자세로 애쓰며 수고해왔다

어울리는 겁니다. 어린이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를 게 없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과 병과 고통을 몰아내는 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번 청소년 및 장년 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영적 전지훈련에 성실히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내려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영·혼·육에 넘치도록 충전을 받는 최고의 전지훈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28TH

UNITED YOUTH CAMP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 중고등부 (7월 27일~7월 29일)

* 대학청년부 (7월 30일 ~8월 1일)

* 장성 에루살렘기도원

*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6:31~34)

우리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

모든 일에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 할 것을 먼저하고,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면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되고, 삶은 혼란스러워지고, 진짜 중요한 일은 놓치게 됩니다.

옷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면 마지막 단추까지 반듯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옷이 뒤틀어지고, 맨 마지막 단추는 채울 곳이 없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삶 전체가 질서 있게 세워지지만,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뒤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1~33).

사람들은 의식주를 챙기고 염려하는 일을 우선으로 두고, 그것에 치중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항아리에 먼저 큰 돌을 넣고 그다음에 작은 것을 넣으면 다 들어가지만, 작은 것부터 넣으면 정작 큰 것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모시면 나머지 인생은 다 채워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오를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소망한 것, 즉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요삼1:2).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마22:37~38).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3~24).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권면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단순히 감정이 뜨거운 예배를 말하

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15: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빠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헛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도 중요합니다. 바람 쐬려 온 차림으로 느지막이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후에 미리 놀러 갈 약속을 잡아두고는 예의상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말1:10).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말1:7).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둘째, 성전 밖의 삶, 일상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성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의 예배 못지 않게 삶에서 의 예배

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또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마28:19~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소경이 벼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막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자입니다. 후진하는 자동차 뒤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데도 모른 척한다면 그 또한 악한 자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을 보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보장된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영멸의 지옥에 떨어짐을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마지막 단추는 채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일 뿐,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3:20).

천국,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실제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목사가 육에서 영이 빠져나가 낙원에 가니 자기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곳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삶이 확실해집니다. 주일에 애경사에 가야 하나, 교회 가야 하나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뭘 먼저 하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경건하게 살겠다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멀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를 원하십니다. 첫 시간을 원하시고, 첫 마음을 원하시며, 첫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칙이 되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단 3일이면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한 그 비율은 13.6% 수준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겉으로 ‘교회를 다니는가’의 문제를 넘어, 그 심령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학교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밝히며 살아가는 학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실질적인 청소년 복음화율은 전체 청소년 인구의 불과 3.8%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사사기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삿2:10~11).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기이한 은혜와 돌보심을 받았으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직접 맛보았어도 그 감격과 흥분은 당대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들어섰을 때, 우상숭배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1997년부터 시작된 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는 올해로 벌써 28회 차를 맞이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수련회에 대한 기

대감이 더욱 배가되는 이유는, 매 시간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삶이 변화되는 드라마가 실제로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쌍둥이 자녀들도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 공부 좀 하라’고 그토록 타일렀을 때는 들은 척도 않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참석한 이후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공부하며, 스스로 목표를 정해 자신을 채찍질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변화가 언제까지 가려나 싶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 뜨거운 신앙과 열정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이 ‘매 순간 혼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총회장님의 모습과 그 강력한 메시지에 전염된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다. 어찌 필자의 쌍둥이 자녀뿐이겠는가! 이 은혜의 맛을 직접 경험한 성도들은 자녀를 수련회에 맡기는 일에 조금의 주저함이 없다. 단 3일이면 충분하다! 자녀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 운명이 바뀌는 시간은! 이 시간에 세계를 이끌어갈 예수중심의 미래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들의 믿음이 더욱 뜨겁게 담금질 되고, 인생의 참된 방향이 설정되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축제가 될 것이다. 단 3일의 변화, 기도원에서 일어난다. 자녀들을 모두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자.

신현명 목사

:: 성경에세이 ::

머리만 귀하던가?

여보게! 사람들은 머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손발은 그저 시키는 일을 하는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지.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아무리 뛰어난 머리라도 손발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머리가 산 정상에 오르고 싶어도 발이 걸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손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입에 넣을 수 없다네. 머리와 손발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는 거지. 성경은 말씀하셨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고전12:14~15). 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고전12:21). 교회도 마찬가지야. 설교하는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찬양대도 중요하고, 안내위원장도 중요하고, 주차 봉사자도 중요하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도 중요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

들도 중요하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없다면 교회 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네.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아프고 불편하지 않던가. 교회의 한 지체가 낙심하고 한 부서가 약해지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각 사람과 각 부서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네. 그러므로 머리는 손발을 무시하지 말고, 손발은 머리를 시기하지 말아야 하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지.

여보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머리 같은 자도 귀하고 손발 같은 자도 귀하다네. 눈에 띄는 자리도 귀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도 귀하다네. 모두가 한 몸이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지체거든.

봉우

:: 경배와 찬양 ::

삶 속에 스며드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서로의 삶을 채워줍니다. 그러다 혹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 빈자리를 매우 크게 느끼게 되죠.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에 스며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스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채우시니 나를 위해 사용하던 시간들을 점점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놀라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번은 주일 아침 일찍 88체육관에 불일이 있어서 토요일 밤에 88체육관 앞으로 가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차가 한 대씩 들어와서 주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들은 뭐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5시가 좀 넘어 체육관 문이 열리니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봉사를 위해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다들 차에서 내리셔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예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너무 대단하고 멋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제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 예수님께 스며들길 원합니다. 제 삶의 빈틈을, 스며드신 예수님으로 꽉 채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물들어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갈2:20).

윤에녹 전도사



:: 낮은 올타리 ::

환경을 바꿔서라도

1년에 책을 백 권씩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년에 백 권을 읽는 과정을 SNS로 공유합니다. 그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1년에 책을 백 권씩이나 읽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게으르게 읽는 습관을 피하기 위해 책을 빌린다고 합니다. 책을 빌리면 기한이 있어 더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출근할 때마다 책을 무조건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무거운 책을 가지고 나가면 그 수고로움이 아까워서 책을 읽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장 데이터가 적은 핸드폰 요금제를 쓴다고 합니다. 책 읽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핸드폰인데, 데이터를 다 쓰면 인터넷을 할 수 없으니 핸드폰에 할애하는 시간을 독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애독자로 살아온 나도, 책을 꾸준히 읽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좋은 것을 꾸준히 하기 위해 자신의 환

경을 바꾸는 이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빠지면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면 기도를 너무 쉽게 쉬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가 주는 힘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많이 할 수 있게 이 사람처럼 저의 환경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환경을 바꿀 생각보다는 제 삶에 기도를 맞춰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제 신앙생활을 위해 세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에 깔린 모든 ott를 삭제했고, 두 번째, 새벽과 밤 중에 한번은 기도할 수 있게 제가 하는 일의 시간을 조정했고, 세 번째, 기한을 둔 작정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덕분에 신앙생활 중 가장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위해 환경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얼마만큼 환경을 바꾸고 계십니까?

장수정

:: 성도 간증 ::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둘째 딸아이가 감기에 계속 걸리면서 중이염이 3개월 동안 낫지를 않았다. 병원에서는 중이염이 오래가서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사실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았다.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도했다.

주일에 이초석 목사님께 안수도 받고 귀신을 쫓았다. 나는 목사님께 안수받았으니 이제 귀에 물이 다 빠졌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병원에 가보니 아직 귀는 물이 찬 상태였다. ‘나는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목사님이 안수하시면 더 큰 병도 낫는 간증을 듣고 보는데, 나는 왜 안 될까’하고 좀 의기소침해졌다.

다음 날 이시대 목사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설교구나’ 느껴졌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말씀을 읽어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다짐했다.

소아과에서 수술 전 마지막 방법이라며 수액 치료를 시작했는데, 간호사 실수로 약 몇 개를 빼고 수액을 놓아주었다. 나는 그 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다가, 첫째 딸이 어렸을 때 중이염으로 아팠을 때 다녔던 이비인후과가 생각이 났다. 그때도 수술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깨끗하게 나왔었다.

이비인후과에 가니 아이 귀에 물이 찬 건 찢어진 젤리 같은 고름이라 약으로는 빼낼 수 없다며,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코를 통해 귀로 바람을 넣어주는 치료를 했다. 아이는 힘들어했지만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일이 왜 내게 왔을까’ 하며 마음이 힘들어 전도사님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소아과의 실수를 통해 병원을 옮겨 아이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말씀하셨다. 그 일만 보지 말고, 네 삶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셨다.

치료받는 중에 감기에 걸려 열이 나자 귀에 물이 빠지다가 다시 찻고, 다른 병원에도 찾아가 봤는데 똑같이 수술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마음이 무너지려고 했다.

엄마가 작정기도를 하라 하셨다.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작정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 기도 중에 갑자기 머릿속으로 한 장면이 그려졌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와 내 품에 안겼는데 피를 토했다. ‘이게 뭘까? 내 생각은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각나지?’ 하면서 일찍 하원을 시키고 어린이집에는 보내지 않았다.

전도사님께 여쭙보니 ‘기도 중에 네게 생

각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음성이고,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내 생각에는 어린이집이 좋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보육을 하며 매일 이비인후과 치료를 다녔다. 수술 날짜도 다가오고 중이염이 쉽게 낫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 설교와 찬양을 통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몇 달 동안 호전이 없었던 아이 귀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열이 나면 다시 귀에 물이 찻는데, 이번에는 열이 났는데도 귀에 물이 빠지고 있었고, 몇 달 동안 안 빠지던 물이 쪽쪽 빠지더니 1~2주 만에 귀에 있던 물이 깨끗하게 다 빠졌다.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 내가 마음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주셨다. 수술 안 받고 낫겠다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버텼더니 내 삶의 불순물을 알려주시고 잘라내게 하시며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강하게 나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셔서 내 믿음을 반석 위에 강하게 세워주셨다.

익숙해졌던 소아과나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게 힘들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결국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눅8:50). 할렐루야!

홀리워십 팀원 김다은

:: 성경에서 배운다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

한 선원이 10년 동안 배 밑바닥을 관리했습니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 작은 균열을 찾아 묵묵히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수고 덕분에 배는 오랫동안 평온하게 항해했지만, 역설적으로 아무런 사고가 없자 선장은 더 이상 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 자리를 맡은 신참 선원은 배 밑바닥을 보수하는 일을 하찮게 여겼고, 여기저기 보이는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얼마 후, 폭풍이 몰아치자 방치된 틈 사이로 바닷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신참은 허둥대며 구멍을 막았고 가까스로 배를 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에는 환호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배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온 사람’을 쉽게 잊습니다. 위기를 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눈에 잘 보이지만, 매일 작은 틈을 살피고 메우는 수고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

문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검소한 새벽부터 의자를 정돈하고 주차를 관리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매주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교사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모든 사람이 거대한 성문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들이 그저 ‘자기 집 맞은편’의 성벽 정도를 수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다음은 베냐민과 핫숨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느3:23). 누군가는 성문을 세우고, 누군가는 자기 집 앞의 작은 성벽을 쌓은 것이죠. 그러나 그 작지만 충실한 섬김이 이어져 마침내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대한 성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자리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작은 틈 하나를 메우고, 맡겨진 성벽 한 부분을 진심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묵상해봅시다. 우리는 병이 낫고, 사고에서 살아남고, 막혔던 일이 극적으로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121:8). 평범하게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은 극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의 모습으로도 우리를 찾아옴을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보지 못한 위험을 미리 막으시고, 알지 못한 균열을 메우시며, 잠든 밤에도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폭풍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인명 집사

:: 빛이 되리라 ::

아주 작은 차이

제가 주로 러닝을 하는 동네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타원으로 된 큰 트랙이 있어서 그곳을 주로 달리곤 하는데요. 같은 곳을 매번 달리다 보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체로 비슷비슷하지만,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10초 정도 빠르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기도 했어요. ‘왜 이러지? 스마트 워치가 생각보다 그리 정밀하지는 않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트랙 폭이 2.5m 정도라, 어른 3~4명이 겨우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은 곳이었는데, 인코스로 돌 때랑, 아웃코스로 돌 때랑 거리 차이가 나는 거였지 뭐예요? 사실 폭도 좁고 길도 구불구불해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어느 쪽으로 뛰어도 거리 차이가 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시간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한 바퀴가 아니고 5~6바퀴 정도 뛰면 시간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차이도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아주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쌓아나간다면,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작은 도전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바빠서 전혀 기도하지 못했다면 무릎 꿇고 딱 10분 만이라도, 성경을 못 읽었다면 하루 1장이라도, 독서를 못했다면 하루 한 페이지라도, 운동을 못했다면 나가서 딱 5분 만이라도 새롭게 시작해보는 거죠. 크게 부담되지 않는 작은 양의 반복된 도전이 어느덧 단단한 습관을 만들어내서, 1년 뒤, 10년 뒤 상상할 수 없는 큰 결실을 가져다줄 것이라 확신하고 기대해봅시다.

장명훈 집사



서울 · 인천 연합 여름 캠프

- * 날짜: 8월 2일(주일)~4일(화)
 - * 장소: 인천 예수중심교회
 - * 문의: 02. 533. 9191
- (지교회는 본부로 연락)